

◆ 그린바이오텍, 환경업체 인수 ◆

미생물 농약 전문 바이오벤처인 그린바이오텍이 환경업체인 원영환경보전(대표 김영휘)과 합병했다.

이 회사 이재호 사장은 “최근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합병을 마무리했다”고 밝혔다.

이 사장은 “연구개발비와 시장개척비용으로 7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산을 소모해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합병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”고 설명했다.

원영환경보전은 환경 관련 업체로 지난해 매출 22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두 회사간 합병비율은 6대1로 그린바이오텍이 원영환경보전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.

이 사장은 “합병을 위해 기존 자본금 37억3000만원을 12억4000만원 수준으로 줄여 적자와 부채를 해소했다”며 “수익 확보뿐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해소 사업 등에서는 연구개발 부문 시너지효과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바이오벤처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이 그 동안 꾸준히 가능성이 지적돼 온 바이오벤처들의 인수·합병 움직임의 신호탄이 아닌가 관심을 높이고 있다.

◆ 제일엔테크, 바이오필터로 중국시장 공략 ◆

코스닥 등록기업인 제일엔테크는 지난 5월 29일 악취제거용 바이오필터 등을 통해 중국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제일엔테크 관계자는 “중국 상하이 환경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바이오필터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려 한다”며 “중국 정부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관련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시장전망은 밝다”고 말했다.

그는 “국내시장의 성장성이 어느 수준에 도달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 담수화플랜트를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”며 “중국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◆ 환경비전21, 악취·폐가스 제거시장 진출 ◆

환경비전21이 명지대 환경생물공학과 정옥진 교수팀과 폐가스 제거에 탁월한 바이오필터 시스템 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.

이 바이오필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수처리에 있어 고질적 문제인 악취와 VOC를 제거하는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.

환경비전21은 자체 보유한 특허 및 선진기술 외에 폐수처리 전반에 관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해 수처리에 관한 토탈솔루션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.

◆ 환경비전21 “SK건설로부터 기술도입” ◆

환경비전21일은 SK건설로부터 하수고도처리기술 설계 및 시공권에 관한 기술을 도입한다고 지난 5월 27일 밝혔다. 계약기간은 지난 5월 25일부터 2012

년 5월24일까지다.

◆ 한화석화, 난분해성 폐수처리 시장 진출 ◆

한화석유화학(주)은 최근 전남 여수 소재 남해화학(주)공장의 초임계수 산화처리 기술을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처리 설비 시운전을 성공리에 끝내 난분해성 폐수처리 시장 진입발판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.

초임계수 산화처리 기술은 과거 해양투기 및 소각처리에 의존해 온 고농도의 난분해성 폐수를 짧은 시간에 완전 산화시켜 처리하는 환경기술이라고 한화석화는 설명했다.

한화석화는 이전에도 이 기술을 응용, 다량의 질소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멜라민 공정 폐수와 폐가스를 처리한 후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상업화에 적용했다고 덧붙였다.

한화석화는 국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, 중국 등 해외 업체에 새기술 및 시설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신규 시장 개척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.

◆ 환경비전21, 슬러지 탈수시장 연내진출 ◆

코스닥등록 환경벤처인 (주)환경비전21(대표 김동우, www.ev21.co.kr)이 슬러지 탈수기술을 호주로부터 독점 도입하고 연내 슬러지 탈수시장에 뛰어든다.

호주의 WTA(Waste Technologies of Australia)社로부터 도입하는 이 기술은 슬러지 중량을 크게 감소시켜 경제성과 처리효율을 높이는 전기탈수시스템(Electro-dewatering System: EDS). 슬러지에 전기적 충격을 가해 슬러지와 물을 효율적으로 분해, 탈수율이 떨어져 직접 소각이 불가능했던 기존 탈수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것이 환경비전21측의 설명이다.

환경비전21은 WTA社와 이 시스템을 적용한 현장 테스트를 조만간 국내서 실시, 검증을 마친 후 연내 본격 시판할 예정이다.

김 사장은 "올 상반기내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완료하여 수처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기술체계를 완성, 수처리 토탈 솔루션 제공 전문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굳혀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 (02)556-2001

